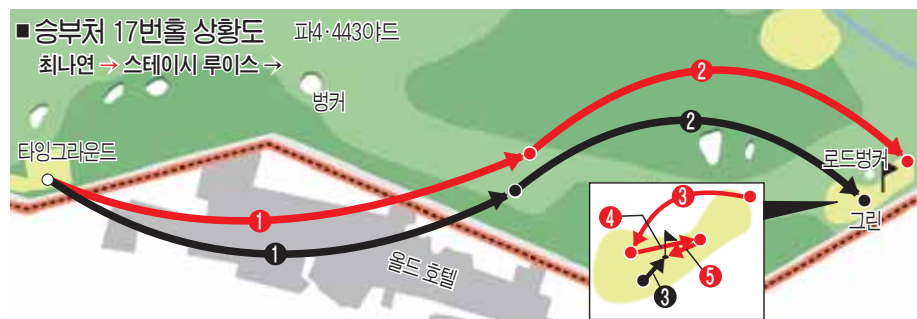


최대 시속 60km 강풍... 박인비 '캘린더 그랜드슬램' 날렸다

브리티시 오픈 4R서 6타 잃어 공동 42위
 루이스 우승... 최나연 박희영 공동 준우승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메이저 골프대회 4연승이자 '캘린더 그랜드슬램'(한해에 4개 메이저대회를 휩쓰는 것)이라는 위업 달성을 노리던 박인비(25·KB금융그룹)의 도전이 아쉽게 막을 내렸다.

박인비는 5일 오전(한국시간) 끝난 브리티시오픈 4라운드에서 6타를 잃어 공동 42위(최종 합계 6오버와 294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그는 최대 시속 60km에 이르는 강풍과 한 번 빠지면 무조건 타수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깊은 벙커 탓에 '골프의 성지'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에서 이루어던 역사적인 '캘린더 그랜드슬램'에 실패했다.

최나연(26·SK텔레콤)은 5일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한때 3타차 단독 선두로 나섰지만 후반에 빠진 연속 보기를 하는 바람에 1오버와 73타를 쳤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타수를 잃은 최나연은 합계 6언더와 282타로 대회를 마쳐 스테이시 루이스(미국·8언더와 280타)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올 시즌 매뉴얼이 피인셜 클래식 우승한 박희영(26·하나금융그룹)도 마지막 날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중요한 고비에서 버디 퍼트가 흠을 외면, 최나연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때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루이스는 박인비의 기세에 눌렸다기 시즌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모처럼 활짝 웃었다. 우승 상금은 26만3989파운드(약 4억5000만원).

루이스는 2011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포함해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왕관을 차지했다. 루이스는 또 지난해 US여자오픈부터 한국 선수가 이어온 메이저대회 연속 행진(5연승)도 막아냈다.

뉴질랜드 교포 리더아 고(16)는 올해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최종합계 6오버와 294타를 기록한 리더아 고는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조지아 홀(잉글랜드)과 똑같이 공동 4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올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스미스 살버 상'은 리더아 고

와 홀이 공동 수상했다.

3라운드가 강풍으로 인해 순연대 대회 마지막 날은 3, 4라운드까지 연이어 하루에 열렸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최나연은 중반까지 루이스, 모건 프레슬(미국), 박희영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최나연은 전반에 1타를 줄여 선두 그룹에 합류한 뒤 10번홀(파4)에서 3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 단독 선두로 나섰다.

때마침 루이스, 프레슬 등 경쟁자들이 줄줄이 타수를 잃은 덕에 최나연은 한때 3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서 편안하게 우승컵을 차지하는 듯했다.

하지만 최나연은 갑자기 샷 난조에 빠져 13번홀(파4)과 14번홀(파5)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내면서 루이스에게 추격의 발미를 내준 것이 화근이었다.

2타차로 뒤지던 루이스는 이번 대회 코스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루이스는 5번 아이언으로 친 두 번째 샷을 홀 옆 60cm에 붙여 1타를 줄였다. 이어 18번홀(파4)에서도 1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어 최나연을 1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로 먼저 경기를 끝냈다.

최나연은 17번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냈지만 두 번째 샷이 핀을 지나쳐 그린 가장자리에 걸리면서 다시 1타를 잃어 버렸다. 1개홀을 남기고 루이스와 2타차로 벌어진 최나연은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으로 이글을 노렸지만 불은 홀 2m 옆에 떨어져 연장전의 희망도 사라졌다.

박인비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려면 날씨도 제 편이 돼야 하는데 이번엔 아니었던 것 같다. 느려진 그린 스피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며 아쉬워했다. 4개 메이저대회에서 추배를 들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박인비가 2012년 삼페인을 터뜨린 예비왕 챔피언십(9월 12~15일)에서 타이틀 방어와 함께 우승을 차지하면 캘린더 그랜드슬램의 새 역사를 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최나연의 승부처 17번홀

최나연(SK텔레콤)이 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오픈 4라운드 17번홀 그린에서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최나연은 지난해 7월 US여자오픈 우승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노렸으나 박희영(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공동 2위(합계 6언더와 282타)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공동 42위로 대회를 마치면서 올해 메이저 대회 4회 연속 우승 달성에도 실패했다. /연합뉴스

우즈, 브리지스톤 8번째 우승... 통산 79승 달성

세계 남자 골프 랭킹 1위 타이거 우즈(미국)가 월드 골프챔피언십(WGC) 시즌 세 번째 시리즈인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통산 8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즈는 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피어스톤 골프장 남코스(파70·7400야드)에서 끝난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꿔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와 265타를 적어내고 2위 그룹을 7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린 우즈는 1999~2001년, 2005~2007년, 2009년에 이어 4년 만에 정상에 오른, 이 대회에서만 8번

째 삼페인을 터뜨렸다. 우즈는 단일 대회에서 최다 우승 타이틀을 세우고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도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다.

단일 대회에서 8번 우승한 선수는 샘 스니드(미국)와 우즈뿐이다. 스니드는 1938년부터 1965년 사이 그레이트 그린즈버러 오픈을 8차례 석권했다.

우즈는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2000~2003년, 2008~2009년, 2012~2013년)에서도 8차례 우승했다.

그는 PGA 투어 통산 79승째를 거둬 스니

드가 보유한 이 부문 최다승 기록(82승)에 3승 차로 다가갔다.

또 우승 상금 150만 달러와 페덱스컵 상금 포인트 550점을 보태 시즌 상금랭킹 1위(765만 달러·약 86억원), 포인트 랭킹 1위(3031점)를 질주했다.

올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WGC 캐딜락 챔피언십·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우즈는 개인 통산 10번째로 시즌 5승 이상을 달성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우즈는 "통산 PGA 투어

승수, WGC 우승 횟수(18회), 시즌 5승 이상



거든 윗수(10회) 등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출전한 배상문(27·켈리웨이)은 4라운드에서 두 타를 까먹고 8오버와 288타 공동 5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양현종·빌로우, 머나 먼 KIA 4강 이끌까

프로야구 전망대

KIA 타이거즈의 살얼음 승부가 계속된다. 안방에서의 4연패로 4강행에 치명타를 입은 KIA가 롯데·NC·삼성을 상대로 필사적인 순위싸움을 벌인다.

9구단 체제의 새로운 변화, 휴식기에 이어 이번에는 2연전이 그라운드 변수로 등장했다.

이번 주부터는 2일 로테이션이 적용되면서 3개의 팀을 상대해야 한다. 부산으로 달려간 KIA는 롯데와 승부를 벌인 뒤 마산으로 건너가 NC와의 대결을 갖는다. 주말에는 안방으로 복귀해 '현직' 삼성을 상대한다.

KIA는 지난 주 삼성전 싸움에 3연패에 이어 4개의 실책으로 흔들린 넥센에게도 패를 기록하는 등 1승4패로 부진했다. 덕분에 1위 삼성과의 격차는 11경기차까지 벌어졌다. 선두권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4강이라는 수정된 목표도 멀리에 있다. 4위 두산과 5경기차, 5위에 위치한 롯데도 2경기 앞서 가고 있다.

더 이상 4위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되는 만큼 매 경기 살얼음 승부다.

두 좌완의 어깨에 '호랑이 군단'의 운명이

9구단 체제 휴식기 이어 그라운드 새 변수 2연전 돌입

NC·롯데·삼성 상대 살얼음 승부... 호랑이 운명 좌우

놓여 있다.

에이스 윤석민이 마무리를 자처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윤석민은 "이번에는 주역으로 우승을 이루고 싶다"며 올 시즌 목표를 언급했다. 우승은 커녕 4강까지 멀어져 가자 윤석민의 장교가 끝났다.

어느 정도 구위를 되찾기도 했고 양현종·빌로우의 가세로 선발진이 정상화된 만큼 윤석민과 KIA가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팀은 물론 윤석민 개인에게도 도박 같은 선택.

윤석민에게 믿을 언덕인 양현종과 빌로우가 첫 스타트를 순조롭게 끊는다면 이번 마운드 재편은 최상의 4강 시나리오가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KIA로서는 더 이상 사용할 패가 없게 된다.

선동열 감독은 6일 롯데전 소서에 이어 양현종·빌로우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열구리 부상에서 돌아온 양현종과 한국 첫 등판

에 나선 빌로우의 활약 여부가 4강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이용규-김주찬-신종길의 라인도 공격의 핵심이다. 윤석민을 배치하면서 뒷심싸움에 힘을 실은 만큼 타선은 초반 싸움에 우위를 점해줘야 한다.

상대로서는 누구 하나 쉽게 승부를 할 수 없는 집중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세 선수가 나란히 섰다. 이들이 앞에서 부지런히 상대를 흔들고 나지않·이범호·김주찬이 파워를 더해준다면 KIA의 반전도 가능하다.

김주찬은 팀의 부진 속에 2일 어렵게 600득점을 채웠다. 다음 600득점은 이용규(-5)가 노리고 있다.

4일 넥센과의 경기가 끝난 후 트레이너실은 만원이었다. 여기저기 아이싱을 한 선수들도 KIA 덕아웃은 전광터 같았다.

발목이 좋지 않은 김선빈은 절뚝거리며 짐을 챙겼고, 김상훈은 홈 볼로링 도중 스파이크가 터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수비까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5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85	52	31	2	0.627	-
2 LG	85	50	35	0	0.588	3.0
3 넥센	85	47	37	1	0.560	6.0
4 두산	87	47	38	2	0.553	6.5
5 롯데	83	42	39	2	0.519	9.0
6 KIA	81	39	40	2	0.494	11.0
7 SK	83	37	45	1	0.451	14.5
8 NC	87	34	50	3	0.405	18.5
9 한화	82	24	57	1	0.296	27.0

지 소화하느라 과부화 걸린 나지완은 허리를 붙잡고 곁을 읊고, "나로 시작된 연패였기 때문에 더 집중했다"는 김진우도 무릎에 아이싱을 한 뒤에야 짐을 꾸렸다.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 KIA가 새로 꾸린 마운드로 4강 전광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범호, 신종길에 "서른하나에 풀타임, 창피하다"

덕아웃 말말말

▲서른 하나에 풀타임이나. 창피하다=이범호, 신종길에 여류 보내기 힘들다고 덕아웃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이제가 풀타임을 뛰느라 힘든 거나면서, 한화에서 함께 뛰었던 두 선수는 KIA에서는 룸메이트를 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사이다.

▲빌로우잡이요=통역 담당, 빌로우가 볼펜 피칭을 하면서 공을 낮게 던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하자. 이름이 빌로우(Below)라며, 아래로, 낮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즌은 김니다=새 외국인 투수 빌로우,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류하게 됐지만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리커뷰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기다리라고 해이시=선동열 감독, 빌로우가 낡은 경기장 시설을 보고 놀랐을 거라면서.

▲뒤편=3일 전력분석 미팅을 위해 라커룸에서 나온 윤석민, 물이 고인 그라운드를 보고 깜짝 놀라다. 이날 경기는 갑작스런 폭우로 유원취소됐다.

▲뵈어요?=4일 경기가 끝난 뒤 허리에 아이싱을 하고 걸어가던 나지완, 도무하는 것을 봤느냐며, 5회 2루타를 치고 나간 나지완은 3

루를 홈치며 시즌 6호 도루에 성공했다. ▲20-20하려고=김경진 매니저, 나지완의 도루 유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흥구 승구 맞으면 죽는다=김종국 코치, 캐치볼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공에 맞지 않게 조심하라며.

▲이폰 추억이 있어=티배팅을 하던 나지완, 뒤쪽에서 캐치볼 훈련이 진행되자 자리를 빙빙 돌면서, 나지완은 배팅 훈련 도중 캐치볼 공에 맞아 팔에 피멍이 든적이 있다.

▲감독님 그제 뭐예요?=훈련 시간 물 탕탕을 맡은 넥센 투수 한현희, 엄경엽 감독이 들고 있던 음료수를 가리키며, 한현희는 엄 감독의 매실차까지 챙겨주고 나갔다.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지=김선빈의 사인볼을 받아야 한다며 KIA 덕아웃을 찾은 이성열, 공도 없이 빈손으로 왔느냐는 얘기에.

▲간 사이즈가 3X라지아=삼성 투수 신승운, 동료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배팅이 좋는데 룸메이트인 안지만은 특히 겁이 없으면서.

▲잘하던 선수가 아니니까=안지만, 원래 잘하던 선수가 아니라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하고 있다며, 안지만은 개인 통산 100홀드에 1홀드를 남겨두고 있다. 프로 야구 역대 5번째이며 우완투수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